

박여범의 소소한 일상

하나 되는 희망의 행진곡

보일 듯, 말 듯, 조금 열린 배란대를 통해 들려오는 아이의 웃음소리가 정겹다. 까치는 나뭇가지에 앉아 울어대며 한가한 주말 아침을 깨워준다. 늘 맞이하던 주말이다. 그렇지만, 오늘 은 조금 다르다.

정신적으로 변화가 있음을 느낄 수 있다. 여제 코로나 19 백신을 접송했기 때문이다. 난제 마저 화창하다.

1주일 전부터 잔여 백신 신청을 하고, 스마트폰 알림을 기다리다가 정말 유연하게 예약이 되었다. 그래서 공가를 신청하고 주사를 맞은 뒤 집에서 안정을 취했다. 해열제 준비와 더불어 단단히 마음먹고 침중한 백신이다.

얼마나 긴 시간, 백신을 기다렸는지 모른다. 때론, 주변의 백신 접종자를 만나면 부럽기까지 했다. 랜데믹으로 인한 정신적 공황은 생말 다르나 할 수 없다.

그두가 인내하고 인내하는 백신 과의 경쟁에서 승리할 날이 나오 고 있는 것 같다. 나뭇잎으로 위안이 되는 듯 심리적 안정감이 찾아온 다.

물론, 변이 바이러스에 의한 공포 가 있다. 그렇지만 인과이 전 대르 바이러스의 위이 되는 일은 없을 것이다. 이럴 때일수록 더욱 침착해야 한다.

가장 중요한 것은 개인의 위생관 리가 정말 중요한 시기가 되었다. 기본에 충실하면 자연스럽게 건강



박 여 범

음북중학교 · 시인 문학평론가

은 찾아올 것이다. 지칠 만큼 지쳐버린 영혼과 육체, 그들은 다시는 견뎌내기 힘들 만큼 의 시간이 공유했다. 유월 맞이 되 면서 날씨는 더워지고 높은 습도에 잠가침이 다가온다. 마스크를 쓰고 생활해야 하는 현실이 인다라고 너 와 나, 우리가 모두 힘든 시기이다. 이런 상황에서 그나마 위료가 되 는 것은 백신 접종으로 인한 마음 의 안정이다. 아프고 아프더라도 시간이 해결해 줄 것이라는 기대는 이제 하지 않는 것이 좋을 듯하다. 과학의 발전에 따라 인간의 노력이 해결해 줄 수 있는 한계가 가끔 보 일 때면 괜히 흘러온 한다.

1주일이라는 긴 시간에 스마트폰을 열고, 또 열고, 또 열고, 또 닫고, 닫고를 반복하다 보니 시도 때도 없이 울려대던 알림상자지 지겨워질 때쯤 눈이 커지고 나도 모르게 '어머'

소리가 허공을 거른다 -아스트라제네카 2건 -안센 1건 -화이자 1건 -조금의 망설임 없이 아스트라제네카를 향해 개인정보 동의 확인을 누르니 터치와 머릿발이 동떨어진지 -예약 완료 -16시 00분까지 방문하세요 이성을 찾고 다시 결과를 천천히 확인하는 동공에 낮은 시골 작은 의원, 감동의 네 글자 난 절실하다 누구에게는 필요 없는 짐승이 필요 없다

-박여범, '예약 완료, 감동의 네 글자' 중 일부

인간은 자연의 위대함에 굴복할 수밖에 없는 것인가? 라는 가장 근 본적인 질문에서 다시 시작해야 할

시기다. 조건 없는 희망단을 강요 해서도 안 된다.

그렇다고 무지갯빛 환상만으로 대중을 유혹하는 우려를 반해서도 안 된다. 깨의 눈으로 현실을 직시 하고 대책을 생각해야 한다. 모든 것의 출발점은 기본에서 시작한다는 사실을 잊지 마자. 파도 가 밀려올 줄 괜히 일년서도 고려 위에 성을 쌓는 어리석음에서 벗어나자. 불온, 경멸을 쌓기 위해 한 번의 경험이라 자위할 수도 있다. 그러나 그것도 상황 나름이다. 조 선 시대의 양면이라 착각하는 당시 의 행동 하나가 소송한 가족이나 동료들 죽음으로 볼 수 있다.

잊지 않아야 한다. 항상 적은 내 부에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분배 의 해결을 내부에서 찾아 출발점으 로 삼는 지혜가 필요하다. 하나르 단하된 내부에서 폭발하는 힘의 원 천이 나라는 사실을 모르는 바보는 없을 것이다.

아비가 가는 '드르르드르르, 자작 자작' 커피공의 향이 유유히나. '포 르르 포르르' 내리는 아메리카는 한 잔에 많은 생각이 담긴다. 머그 잔 가득 채워 배라다로 향한다. 맑 은 공기를 한 그릇 크게 들이켠다. 여전히, 들려오는 아이의 웃음소 리, 까치 부부의 노래가 도식 속 아 파드를 채워준다.

ITS의 'BUTTER'를 들으며 경쾌 하게 스텝을 밟아본다. 배란다 저 편 그 어디에서 하나가 되는 희망 의 행진곡이 들려온다.

사설

이용호 의원 복당 문제

무소속 이용호 의원(남원·임실·순창)의 더불어민주당 복당 문제를 놓고 찬반 여론이 첨예하게 엇갈리고 있다. '복당을 승인해야 한다'는 찬성론과 '복당을 허용하면 민주당이 원칙 없는 정당으로 전락한다'는 반대론으로 양분되어 있다.

괜찮은 기 싸움 양상이 전개되고 있는 것이다. 이용호 의원을 지지하는 남원·임실·순창 지역발전협의회는 "이 의원이 당선 시 민주당 복당을 공약했고 지역의 민심도 복당을 바라고 있다"면서 민주당의 수용을 촉구했다.

하지만 이 의원의 복당을 반대하는 민주당 남원·임실·순창 지역위원회는 "이용호 의원이 그간 민주당 반대편에 섰고, 복당 신청은 지역에 혼란만 부추겨 어불성설"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그간 호남권 국민의당 출신 무소속 후보의 복당은 절대 없을 것임을 천명한 바 있다"며 "그 약속을 뒤집는다면 당의 원칙과 신뢰를 무너뜨려 당원들을 혼란에

빠뜨리게 될 것이다"고 경고했다.

한편 이용호 의원은 2004년 민주당(당시 새천년민주당) 후보로 17대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했다가 낙선한 뒤 2016년 20대 총선에서 국민의당 후보로 전북 남원·순창·임실 지역구에 출마해 당선됐다.

이후 2018년 당시 국민의당이 바른정당과 합당을 결정하자 이에 반발하며 탈당했다. 지난해 21대 총선에선 무소속으로 재선에 성공했다.

민주당은 복당 신청을 한 이 의원에 대한 당원 자격 심사위원회를 지난 4월 열었으나 결론을 내지 못했다.

결국 새로운 지도부에 공을 넘긴 상태다. 문제는 지역 민심의 분열 양상이 지역 발전에 악재로 작용한다는 점이다. 민주당 남원·임실·순창 지역위원장 직무대리를 맡고 있는 현재 남원시장의 거취에도 촉각이 곤두서고 있다. 이 의원의 복당 문제는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당분간 더욱 확산할 전망이다.

정읍 지렁이 농장 무슨 일인가

전북 도내 어느 지렁이 농장들이 악취 문제로 도마 위에 올랐다. 이곳의 지렁이 농장은 폐기물을 지렁이 먹이로 사용해 퇴비를 생산하는 일종의 폐기물 재활용 시설이다.

정읍 대동마을과 대북마을, 그리고 대사리 등 마을 주민들은 지렁이 농장들 때문에 살 수가 없다며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

이곳에는 비닐하우스마다 시커먼 물기를 머금은 흙이 가득 차 있다. 하수 찌꺼기인 폐기물이다. 이런 특정 폐기물을 지렁이에게 먹인 뒤 여기서 나온 분변을 퇴비로 사용하는 폐기물 재활용 시설로 이른바 지렁이 농장이다.

하지만 지렁이가 먹는 폐기물보다 쌓이는 폐기물의 양이 급증하면서 악취 피해가 크다고 주민들은 말한다. 2014년 한 곳이었던 정읍시 대사리의 지렁이 농장은 7년 만에 6곳으로 늘었다.

정읍에 있는 지렁이 농장 가운데 3분의 1이 이 일대에 몰려 있는 것이다. 이렇다 보니 악취는 물론 환경오염 우려까지 커지고

있다. 주민들은 "비가 오면 폐기물이 하천과 논으로 다 흘러 들어가서 농사에도 피해가 많다"고 말한다. 지금 3년째 농사를 못 짓고 있는 사람이 있다고 하소연하기도 한다.

정읍시는 민원이 있을 때만 나서고 있다. 최근에도 주민 민원이 접수되자 폐기물 반입량 기준을 초과한 농장 1곳에 과태료 100만 원을 부과했을 뿐이다.

지렁이 농장주들은 정읍시에 신고하거나 허가를 받아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말한다. 또 피해를 줄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특히 주민들한테 냄새가 안 가게 하려고 톱밥도 쓰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반복되는 악취와 환경오염 우려로 주민 고통이 커지고 있다. 환경오염은 주민들의 건강과 직결되는 문제다.

행정 당국의 철저한 감독과 함께 지렁이 농장 폐기물이 제대로 퇴비로 활용되는지 점검이 필요해 보인다.

사외기고는 본보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

독자제언

축법소년이란 단 10세 이상~ 단 14세 미만으로 형벌을 받을 범법행위를 한 형사미성년자로 형사책임능력이 없기 때문에 형벌이 아닌 보호처분을 받게 된다.

지난 2월경 범인은 전북 00시에 거주하는 A군(13)에게 락배 절도, 모델 방화 등의 혐의로 장기 보호관찰 2년과 야간 외출 제한 명령 3개월을 내렸다.

그러나 A군은 보호관찰관 지시에 여러 차례 불응하고, 법원의 명령도 위반했을 뿐만 아니라 또래 중학생들과 차량을 훔쳐 무면허 운전도 하였다. 이에 전북 군산보호관찰소는 6월 17일 A군을 광주소년원에 유치했다고 밝혔다.

A군은 법원이 유치 결정을 하는 과정에서 "잘못된 거 아니에요? 저는 축법소년 나이인 13살인데 왜 소년원에

축법소년 이대로 괜찮은가

가야 하는 거냐구요?"라며 강하게 항의했다고 한다.

소년원은 소년교도소와 구분되는 시설로, 형사처분이 아닌 재교화시키는 목적을 가졌을 뿐 전과기록이 남지 않는다.

A군은 축법소년이기에 온갖 범죄를 저질렀음에도 형사처분을 받지 않고 소년원에 유치되었다.

경찰청 자료(2020년 통계 확정되지 않음)에 따르면 전체 소년범죄 중 강력범죄의 비중은 2009년 28.9%에서 2019년 33.6%로 10년 새 4.7%가 증가하였고, 미성년자의 성폭력 범죄의 경우 2009년 1,574건에서 2019년 3,180건으로 10년 새 두 배 가까이 증가했다. 이처럼 소년범죄의 수법이 점점 잔혹

해지고 있는 만큼 여론은 국민 청원 등을 통해 축법소년의 연령 하향 조정과 같은 소년법의 개정과 함께 강력한 처벌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하지만 많은 전문가들은 축법소년의 연령 하향에 긍정적이지 않다. 그 이유는 축법소년에 대한 연령 인허가 범 죄감소로 이어졌다는 해외의 사례를 찾아볼 수 없다는 이유였다.

실제로 덴마크에서 형사미성년 기준을 15세에서 14세로 하향 조정하였으나 14세 소년의 재범률이 오히려 증가

해 다시 15세로 상향 조정했다. 현 상황에서 축법소년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는 당연하다.

하지만 우리가 가장 먼저 생각해야 할 것은 범죄 피해자가 피해 발생 이전의 일상으로 회복할 수 있도록 하는 일이다.

가해자의 처벌 강화가 피해자의 구제에 어디까지 효과가 있을까? 미성년 에 대한 처벌은 조금 더 엄중히 고민 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위 사안은 정부와 관계기관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지속적으로 논의하여 해결해야 할 과제라고 생각한다.

실재중 전북경찰청 제17동대 순경

구독 · 광고문의 063-288-9700

전주매일 홈페이지 www.jjmaeil.com

용기와 희망을 주는 인간을 위한 정론지. '더 좋은 신문, 더 사랑 받는 신문, 독자와 함께하는 신문'을 위해 전주매일의 전 직원들은 '전북 최고의 신문'을 제작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진정한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중앙지를 답습하는 형태를 벗어나 보다 깊이 있게 내 고장 소식을 빠르고 정확히 독자 여러분들에게 전달하겠습니다. 당신의 가려움을 속 시원하게 긁어 드리기 위해 대안적 비판 기능을 강화하고 있으며 한 단계 더 성숙한 네트워크 구축과 함께 지역발전의 수레바퀴를 힘차게 굴리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인간중심 · 도덕중심 · 지역중심 전주매일